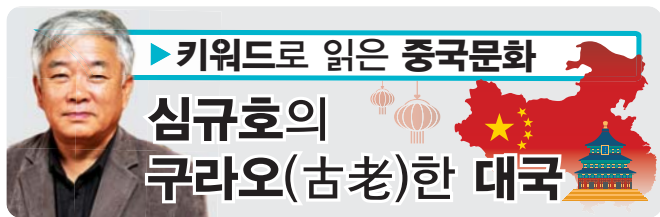


아홉 가지 군자의 길... 두루 사귀되 패거리 짓지 않는다



20. 군자와 소인

어는 인간이나 사회든 목표가 있기 마련이다. 그 목표를 향해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오랜 세월 축적한 것을 우리는 문화라고 부른다. 설사 목표가 선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마찬가지다. 말인 즉 문화에는 선한 부분도 있고, 악한 부분도 있으며, 양자에 속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인류가 대체적으로 우량한 문화를 소유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나마 선한 부분이 악한 부분을 제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것이 과반수에 달할 것인가? 인류의 문화전쟁은 바로 이를 위한 싸움인지도 모른다.

군자는 다스리는 자에 해당
한쪽만 두둔 않고 두루 배려
마음에 거칠 것이 없이 활달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느 사회든 나름의 이상적인 인격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구의 신사紳士나 성인, 성도聖徒, 중국의 성인, 군자, 한국의 선비, 일본의 무사 등은 일종의 집단인격의 모델로 상징되었다. 그렇다면 중국의 군자는 어떤 인물이고, 이에 반하는 소인은 또 어떤 인물인가?

정대 학자 유월은 『군경평의群經平議』에서 이렇게 말했다. “고서에서 군자, 소인을 말한 것은 대부분 지위로 말한 것이다. 한대漢代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후대 유가들은 오로지 인품으로 군자, 소인을 말했으나 옛 뜻과 다르다.” 군자는 원래 ‘군왕자君王之子’의 준말로 지위가 높은 사람, 통치자, 또는 귀족 남자의 통칭으로 소인 또는 야인野人과 상대되는 말이다. 공자는 이러한 군자에게 소인과 대별되는 특별한 인격을 부여했다. 군자가 바로 사회와 나라를 올바르게 운영해야 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주나라 봉건제가 무너지고 전한시대가 지난 후에 도 여전히 군자가 중시된 까닭은 공자에 의해 이상인격으로 간주된 것과 무관치 않다.

‘논어’에 보면 공자의 핵심 개념인 인이나 덕보다 군자에 대한 언급이 훨씬 많다. 이는 군자에 대한 논의가 이



군자가 깊이 생각해야 할 아홉 가지(九思).



공자 초상.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다시 말해 군자가 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중국 문화학자이자 저술가인 위추위余秋雨는 ‘군자의 도(君子之道)’, 라는 책에서 군자의 길을 아홉 가지로 나눈 바 있다. 첫째, 군자는 덕을 생각한다. 둘째, 군자의 덕은 바람과 같고 민중의 덕은 풀과 같다. 바람이 풀을 향해 불어오면 풀은 바람을 따라 눕는다. 셋째, 군자는 다른 이의 아름다움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넷째, 군자는 두루 확인하며 편을 만들지 않는다. 다섯째, 군자는 마음이 시원하고 너그러워야 한다. 여섯째, 군자는 중용을 지킨다. 일곱째, 군자는 예를 중시한다. 여덟째, 군자는 기물이 아니다(君子不器). 아홉째, 군자는 치욕을 안다. 아홉 가지 가운데 여섯 가지는 ‘논어’에 나오는 말이고 다른 것은 ‘중용中庸’이나 ‘맹자’, ‘좌전’ 등에 나온다. 하지만 모두 공자의 군자관과 일맥상통한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다. 공자는 ‘논어’ ‘이인리仁’에서 “군자는 덕을 생각하고, 소인은 땅을 생각하며, 군자는 법을 지킬 것을 생각하며, 소인은 은혜 받기를 생각한다.”라고 했다. 공자와 사의 문제이지 선후의 문제일 따름이다. 주희는 이렇게 주석을 달았다. ‘회懣란 생각한다는 뜻이다. ‘회덕懷德’이란 고유의 선함을 보존한다는 말이다. ‘회토懷土’란 있는 곳의 편안함에 빠진다는 뜻이다. ‘회형懷刑’이란 법을 두려워한다는 뜻이다. ‘회혜懷惠’란 이익을 탐한다는 뜻이다. 군자와 소인의 취향이 다른 공과 사의 차이일 뿐이다.” 여기서 군자는 통치자를 말하는 것이고, 소인은 일반 백성을 말한다. 사실 일반 백성은 자신이 사는 곳에서 자족하며 삶을 영위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군자는 다르다. 그는 다스리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가 땅에 안착하기만 바란다면 누가 사회를 책임질 것인가?

“군자는 두루 사귀되 패거리 짓지 않으며, 소인은 패거리를 짓고 두루 사귀지 않는다.” ‘논어·위정’에 나오는 문장이다. ‘두루 사귀되 패거리 짓지 않는다(周而不比).’는 말에 대해 주희는 “여러 사람들을 후대하되 한



전각(篆刻)한 ‘君子不器(군자불기)’. ‘군자는 기물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지녔다.



‘논어·위정’에 나오는 문장인 ‘주이불비(周而不比)’. 군자는 두루 사귀되 패거리 짓지 않는다.



己所不欲 勿施於人(기소불욕 물시어인).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다른 이에게 행하지 마라”는 뜻이다.

꼭만 두둔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여러 사람을 후대한다는 것은 여러 사람들을 배려한다는 뜻이다.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다른 이에게 행하지 마라(己所不欲, 勿施於人).”(‘안연顔淵’)이 보다 큰 배려가 있을까? 이렇게 넓은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 ‘근자사 마음’에 거칠 것이 없이 활달하지만 소인은 항상 근심 걱정으로 가슴을 좁인다.”(‘金糸洵’) 반면에 한 쪽만 두둔한

和而不同(화이부동). ‘군자’는 조화롭되 똑같지 않다.



‘和而不同(화이부동)’. 군자는 조화롭되 똑같지 않다.

청말에 군자·소인 논변 유행 “군자는 왜 소인을 못이길까” 소인이 나날이 늘어나는 시대

하지만 사람은 본시 모여 살 수밖에 없는 사회적 존재이다. 씨족이 모여 부족이 되고, 부족이 합쳐져서 국가가 되고, 국가가 모여 세계가 된다. 우리는 곧 울타리이니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습속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그 울타리는 무한하게 확장될 수 있다. 너와 나도 우리만 부족도 우리가 될 수 있고, 국가도 우리가 날 수 있으며, 세계도 또한 우리가 될 수 있다. 문제는 패자

리나 선한가, 아니면 악한가의 문제일 따름이다. 당대 사학자 오공吳兢은 '정관정요貞觀政要'에서 이렇게 말했다. "군자와 소인은 일정함이 없으니 선한 일을 행하면 군자이고, 악한 일을 행하면 소인이다." 지나치게 단순화한 경향이 없지 않을지 아 역시 옳은 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악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가? 덕을 쌓아야 한다. 사서四書 가운데 한 권으로 대인의 학문을 밝힌 '대학'에 따르면, "군자는 먼저 덕에 신중해야 한다. 덕이 있어야 사람이 있고, 사람이 있어야 땅이 있으며, 땅이 있어야 재물이 있고, 재물이 있어야 쓸 것이 있다. 덕은 근본이고, 재물은 말단이다." 순자荀子 역시 "군자는 덕으로써 행하며 소인은 힘으로 행한다."('부국富國')고 하여 군자와 덕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덕을 쌓을 수 있는가? 당대 위징魏徵의 말에서 단초를 얻을 수 있다. "군자의 마음은 인물을 실천하여 큰 덕을 밝히고, 소인의 성정은 험담과 악행을 좋아하여 일신을 도모한다."('집침불국종소十漸不克終統')

말은 참 쉽지만 실천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 청말에 이르러 문인들 사이에 의리義利에 관한 논변과 더불어 군자와 소인에 관한 논변이 유행했다. 흥미로운 것은 소인이 아닌 군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라 군자가 왜 소인을 이길 수 없는가를 논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손정신孫鼎臣은 “군자가 소인을 이기는 것은 우연한 일이고, 소인이 군자를 이기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다.”라고 하여 군자는 나날이 줄어들고 소인은 나날이 늘어나는 세태를 고발했다. ‘군자론’을 쓴 유월 역시 군자가 소인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군자가 오히려 소인에게 이용당하는 현실을 개탄한 바 있다.

군자? 아니면 소인?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 군자가 되는 것은 힘들어도 소인이 아니 될 수는 있다. 가장 흉측한 것은 소인인데 군자인 척하는 것, 이른바 위군자(僞君子) 지인데, 이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심규호·제주국제대 석좌교수〉

마음이 기억하는 여행

한진관광 KAL 투어 KAL PAK

☎

예약문의 : 제주지점

742-7217

www.KALTOUR.com
제주시청점(이색투어) 758-2000

한진관광 멤버십!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세요~!

협찬
KOREAN AIR 50 years

 [폭격] 대한항공BEST 인도 골든트라이앵글+ 라자스탄 일주[국내선 1회] 9일 ₩ 2,990,000 출발일 : 11/14 최소출발인원 : 8명 일정 : 제주-김포-인천-델리(1)-아그라(1)-아바네리-자이푸르(1)-푸쉬카르(1)-조드푸르(1)-우다이푸르(1)-델리(1)-인천-김포-제주 선택관광 : 있음 ①,②	 초특급 호텔 이용 인도 골든트라이앵글 [자이푸르 연박] 6일 ₩ 1,670,000+90달러 출발일 : 11/8, 22 최소출발인원 : 8명 일정 : 제주-김포-인천-델리(1)-아그라(1)-파테무르 시크라-자이푸르(2)-델리-인천-김포-제주 선택관광 : 있음 ①,②	 대한항공 중국 10대 명산 북경/백석산 4일 ₩ 731,600~ 출발일 : 9/9,12,14,20,23 최소출발인원 : 8명 일정 : 제주-북경-래윈(1)-백석산-북경(1)-북경(1)-제주(1) 선택관광 : 있음	 대한항공 북경/만리장성 [랑팡 쉐라톤] 4일 ₩ 581,600~ 출발일 : 9/9,12,14,20,23 최소출발인원 : 10명 일정 : 제주-북경(3)-제주 선택관광 : 있음
---	--	---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판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지를 철저히 준수합니다. 일반여행권 등록 제8호(서울시 중구청 동통목) (주)한진관광 서울 지사 소금로 88(소금동) 한진빌딩 2층 2층 ●일반여행권 영업보증보험 약하면 기밀기억여행 실시에 따른 보증보험 5만원의 부담 ●공동행사 : 상품가격 외에 □ 부분은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기사/가이드 경비입니다. ●호텔 : 별도할당 (2인실기준) ●식사 : 전일정 식사제공단, 입장상품의 자유시간을 중/식대 제외 ●최소출발인원 : 8명(미달인원은 취소) ●교통신료 : 항공비/버스/택시 ●부속항공사 : 해당항공사에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받음 ●요구된 환율 및 항공요금에 의해 변동 가능 ●여행비용 처리센터 : 0272-5672-73 ●안전경보단계 ●여행유예 ●여행취체 ●상수권고 ●여행금지 권고로 구분되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www.0404.gov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2019.8.6 업데이트 기준) ●여행상품 가격 포함내역 : 항공권료, 유류착중료, 항공서비스, 전쟁보험료, 관광지입장료, 운송/숙제/일정상의 식음료, 기사차량대, 기사차량대 경비(현지 지불), 여행자보험 약전, 현지관광담당료 등, 일정표상의 금액이 부당하다 하는 모든 항의는 출발일 당일 여행 상품의 미적합과 각각 비자료를 상품가격 외 별도로 정함 ●선택관광비 : 선택관광객비 별도로 유우는 상품의 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선택관광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 또는 일정상 불이익은 없으며 이에 따라 대대 일정이 제공 됩니다. (지역별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